

호남 농악 소고 (湖南 農樂 小考)

洪 顯 植
〈成均館大學校 講師〉

1. 농악(農樂)의 기원(起源)

농악(農樂)의 기원(起源)은 문헌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다만 삼국시대 이전부터 농사를 생업(生業)으로 하게 된 이래 하늘에 감사와 축원을 올리기 위하여 제천의식(祭天儀式)을 할 때 가무음주(歌舞飲酒)를 하는데 농악(農樂)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추측된다.

삼국지 지위지(三國志 誌魏誌) 동이(東夷)에 의하면 마한상이오월 하종홀 제귀신 군취 가무음주 진야무휴, 기무수십인, 구기상수, 답지저앙, 수족상응... 십월농공필, 역부여지(馬韓常以五月 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飲酒 盡野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라 하여 제신축원(祭神祝願)의 종교의식(宗教儀式)에서 춤으로부터 농악(農樂)은 기원(起源)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 당시의 농악형태(農樂形態)는 악기(樂器)가 구비된 것이 아니고 무용을 위주로 해서 다만 「북」을 두들기며 답지저앙(踏地低昂)한 형태(形態)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원적(始原的)인 형태에서 점차로 다른 타악기(打樂器)가 첨가(添加)하여 농악(農樂)이 전래되지 아니하였는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상대악기(上代樂器)에 방울, 북[고(鼓)] 피리[적(笛)] 고[금(琴)] 네 가지 악기(樂器)가 종교적 의식(宗教的 儀式)에서 쓰이게 되었다는 일설(一說)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북」은 신사(神社)에 두리둥둥 울림은 고금(古今)이 마찬가지로다.

ㄱ. 동명왕편(東明王篇)에 고려시조(高麗始祖)가 비류국(沸流國)으로부터 국가의 위엄을 자랑하여 보일 때 고각(鼓角)이 중심재(中心材)가 되었음을 전하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고구려(高句麗) 대무신왕본기(大武神王本記)에는 낙랑국(樂浪國)에 신고(神鼓)가 있어 헌병(獻兵)이 들어오면 저절로 울기 때문에 아무도 낙랑을 침입 못하더니 왕자호동(王子好童)의 대책으로 그 신고(神鼓)를 파열시키고 낙랑을 습격하여 그를 정복하게 하였다는 전설(傳說)을 기록하였으니 당시 악기 가운데 「북」에 고대(古代)의 고유(固有)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ㄴ. 어느 나라간에 원시민족(原始民族)들이 단순하고 손쉽게 다루고 칠 수 있는 악기이다.

또한 이것은

ㄷ. 농악에 소고(小鼓)[매귀(埋鬼)북]를 치는 것을 범고놀이로 칭하여 오늘에도 북을 치며 춤을 추는 형태를 볼 수 있음은 이것은 예로부터 춤으로 비롯한 북소리의 전래(傳來)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은 농악기원(農樂起源)의 유일(唯一)한 악기(樂器)이다.

춤추고 뛰며 노는데 「북」을 두들기며 흥을 북돋는데 비롯하여 다른 악기가 첨가되어 「잡색」과 더불어 농악은 발전되었을 것이다.

문헌(文獻)에 농악기 구성(農樂器 構成)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므로 알 수 없으나 전설(傳說)에 북 징 이종(二種)의 농악기 밖에 없었다는 말은 점차로 농악기가 첨가되어 구성되었다는 말을 굳게 하는 말로서 추론컨대 대개 고려조를 전후하여 중국악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농악기의 지배 구성이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고려조(高麗祖) 때에 국악기(國樂器)의 형성을 보아 알 수 있다.

2. 농악형태(農樂形態)의 유래(由來)

농악의 유래(由來)에 농사안택축원설(農事安宅祝願說), 군악설(軍樂說) 불교관계설(佛敎關係說)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말한다면

- (1). 축원형태설(祝願形態說) (2). 노작형태설(勞作形態說)
(3). 걸입형태설(乞笠形態說) (4). 연예형태설(演藝形態說)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악형태는 무희적(舞戲的)인 요소에 타악적 요소(打樂的 要素)가 혼합하여 형성되었다.

이것이 시대에 따라 그 성격에 관한 형태가 변천(變遷)하였으나 그 종적(縱的)인 과정(過程)은 요연(瞭然)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것이다.

축원형태(祝願形態)→노작형태(勞作形態)→걸입형태(乞笠形態)→연예형태(演藝形態)의 4단계(四段階)로 변천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날날이 단절되어 독립적(獨立的)으로 변천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가지를 치중하면서 동시적(同時的)으로 진전된 것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근일(近日)에 연예형태(演藝形態)가 성행된다지만 축원형태(祝願形態)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노작형태(勞作形態)도 역시 그러하다.

ㄱ. 축원(祝願), 농악형태(農樂形態)

상기(上記)한 삼국지 위지(三國志 魏誌) 동이전(東夷傳)에 마한상이오월하중기 제귀신 군취가무음주주야무체 기무수십인 구기상수 답지저앙 수족상용 십월농절필 역복여지(馬韓常以五月下種記 祭鬼神 群聚歌舞飲酒晝夜無體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十月農切畢 亦復如之)라 함과 같이 파종(播種) 때와 추수(秋收) 때에 축원(祝願)을 올리기 위하여 종교적 의식(宗敎的 儀式)의 성격인 축원형태농악(祝願形態農樂)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전래한 「농족(農族)춤」 농악(農樂)으로 일설(一說) 매귀안택(埋鬼安宅)을 제신(諸神)에 기원하는 「매귀(埋鬼)굿」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 밖에 「기우제(祈雨祭)굿」 「당상(堂上)굿」 등이 있는 바 당상(堂上)굿이라는 그 부락수호신(部落守護神)에 대한 축원(祝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악은 일명(一名) 「굿」이라고도 칭하는데 이것은 무당굿을 굿이라 하는 것과 같이 제신(祭神) 「굿」에서 연원(淵源)하여 분화전래(分化傳來)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농악의 악기는 「북」을 치며 「춤」으로 이루어진 소박(素朴)한 형태(形態)인 것이다.

○ 악기—형태: 북, 춤, 수인(數人)

ㄴ. 노작농악형태(勞作農樂形態)

농기(農期)의 작업 때에 농악의 음률에 호흡을 고르고 일손을 맞추어 조화된 보조(步

調)에서 작업의 진보(進步)를 원활(圓滑)히 하며 휴식오락으로 피로를 감퇴케 하는 농악 형태이다. 모심을 때의 「모내기굿」과 김매기 때의 「두레굿」 등이다. 모내기 때에는 「모방고」라 하여 북을 치면 농꾼들이 일제히 모여 북소리를 들어가며 모내기를 한다.

김매기, 두레굿에는 쟁과리(一人), 장고(一人), 북(一人)은 논 안에서, 징(一人)은 밖에서 굿을 한다. 간단한 농악구성(農樂構成)으로 소박한 가락의 「도들이 풍장」 「재넘기 풍장」으로 이루어진다. 모내기 굿에는 「상사소리」와 두레굿에는 「방개소리」를 주고 받는다.

작업이 끝나면 때로는 솔매기 농악(農樂)을 치며 즐긴다.

○ 악기일태설(樂器一態說): 북, 쟁가리, 장고, 징 四五人

ㄷ. 걸입농악형태(乞笠農樂形態)

불가(佛家)의 걸입형태(乞笠形態)에 소칭(所稱) 「군악(軍樂)」이라는 군중진법(軍中陳法)은 모의(模擬)하여 진푸리와 더불어 연기되는 것이다.

이조불교(李朝佛敎)가 쇠퇴하여 짐에 재원(財源)의 빈곤으로 인하여 사찰(寺刹)의 소위 재모금(財募金)의 방법으로 화주승(化主僧)을 비롯한 수십역(數十亦)이 일단(一團)이 되어 민가(民家)를 걸입(乞笠)하던 사원(寺院)의 「굿중패」에 전래한 것이다.

이것을 민간(民間)에서도 「걸궁」 또는 「마당밧이」라 하여 「도청」을 위시한 농악단이 마을의 공익사계금(公益事系金)[동청(洞廳), 교량(橋梁), 상여(喪輿), 농악기(農樂器)]를 염출(捻出)할 목적으로 음정(陰丁) 정월초(正月初)에 하는 걸입과 같은 농악이다.

이 농악형태는 불교식(佛數式)의 형태(形態)가 더 불게 된 것이 이채롭다.

즉 「고깔」을 머리에 쓰고 「자바라」를 지는 것과 잡색에 「중」이 따르기도 하는 것이다.

악기의 치배도 변천하였으니 북쇠 장고 징[각(各) 二人] 등이 한치배에 상(上)쇠 부(副)쇠와 같이 二人 이상으로 증가하여 십여인(十餘人)이 되고 기외(其外)에 「나팔」 「새납」과 같은 취악기(吹樂器)도 따르며 여러 잡색과 더불어 진푸리를 하여 본격화(本格化)의 농악형태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 악기一형태: 북, 쇠, 장고, 자바라, 취악기(吹樂器)[各 2人] 십수인(十數人)

의상(衣裳)·고깔 상모 잡색·등

ㄷ. 연예농악형태(演藝農樂形態)

이것은 무대연예적(舞台演藝的) 성격의 농악형태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걸입농악(乞笠農樂)에서 연예농악형태(演藝農樂形態)는 자체(自體)를 위주하기보다 관람자(觀覽者)를 보여주기 위한 굿으로 농악의 성격이 변하였다.

농악형태의 다양기(多樣器)와 여러 「잡색」이 따라 자유롭게 연기되는 것이다.

이것이 근일(近日)에는 야외광장 혹은 무대에서 농악분위(農樂本位)로 원형(原型)을 윤색(潤色)하여 간추려서 연행(演行)되기도 한다.

○ 악기一형태: 걸입농악기(乞笠農樂器)와 같음

의상 농악복(農樂服), 가락은 기교다양(技巧多樣)하며 흥미분위이다.

(잡색—대포수, 창부, 양반광대, 중)

이상의 형태에서 농악의 성격을 구분하면 축원형태(祝願形態)와 노작형태(勞作形態)가 내적(內的)인 자체(自體)를 위한 소박(素朴)한 격식 농악(格式 農樂)의 성격인데 대하여 걸입형태(乞笠形態)와 연예형태(演藝形態)는 외적(外的)인 욕구를 위한 연희적 농악(演戲的 農樂)으로 변천되었다.

농악은 무적(舞的) 악적(樂的) 극적(劇的)인 것이 혼합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가는 알 수 없으나 예로부터 내려오는 무적 요소(舞的要素)의 변천에 따라 특히 사당(祠堂)패의 영향을 받아 치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三. 호남농악형태(湖南農樂形態)와 특징(特徵)

농악은 대개 한 동리(洞里)를 단위로 하여 순서가 이루어지는데 (1) 들당산(黨山) (2) 문굿 (3) 당산(黨山)굿 (4) 판굿 (5) 도둑재비굿 (6) 날당산굿 등과 같은 과장(科場)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가림새 가락이 이루어진다.

다만 한 집을 단위로 할 때는 「마당밧이굿」을 위주로 하여 위의 과장(科場)을 약(略)할 수 있다.

이의 각 굿의 차순(次順)에서 설명한다. 이에 농악의 형태를 크게 보아 3방(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즉 (1). 구성면(構成面) · 「앞치배, 뒤치배」
- (2). 기예면(技藝面) · 「윗노리, 밑노리」
- (3). 동작면(動作面) · 「개인적(個人的), 군단적(群團的)」

「앞치배」가 선두에서 치는 리듬에 따라 뒤치배는 종미(終尾)에서 이를 맞추어 춤과 함께 굿을 구성하는데 「윗노리」의 채상돌림과 「밑노리」의 가락이 기예(技藝)를 보이며 「개인적 혹은 군단적(群團的)인 무작(務作)」으로 진푸리와 더불어 마스케임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이 가운데 어느 면에 치중하느냐에 있어 그 지방의 차이(差異)로 나타나 특징이 달라진다.

여기에 「좌도(左道)굿」 「우도(右道)굿」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ㄱ. 호남농악(湖南農樂)의 특징(特徵)

전라지방에서는 산간지대의 평야지대와 농악을 좌우농악(左右農樂)으로 크게 구별하여 좌도(左道)굿 우도(右道)굿이라 칭하는데 지역적인 관계에 인하여 두 형태로 대별(大別)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좌도(左道)굿

가. 지역... 남원, 금산, 장수, 무주, 임실, 전주, 순창, 운봉, 곡성, 구례.

나. 의상... 전원이 전립(戰笠)을 쓰고 복색(服色)이 비교적 간소하다.

다. 기법... 빠른 가락이 많으며 동작이 빠르며 단체연기(團體演技)에 치중한다.

라. 특색... 윗노리를 치중하나 밑노리 굿가락은 담백하다.

마. 기타... ① 경상도 농악과 비슷한 데가 있다. ② 판굿외의 여타(餘他) 굿은 애멸상태가 있다.

(2). 우도(右道)굿

가. 지역... 김제 정읍 부안 고창 장성 광주(光州)

나. 의상... 고깔을 주로 쓰고 복식(服飾)이 화려하다.

다. 기법... 느린 가락이 많으나 빠른 것도 곁들여 비교적 가락이 다양하고 개인 연기(個人演技)에 치중한다.

라. 특색... 윗노리를 치중치 않고 「밑노리」 굿가락이 다채롭고 멋이 있다.

마. 기타... ① 타도(他道)와 달리 채상이 없는 장고가락이 발달함에 따라서 큰북을 안치는 경향이 있다.

② 판국외에 여지(餘地)의 굿이 전래(傳來) 보존되었다.

좌우도(左右道)굿이 종전에는 판이하였으나 교통발달로 서로 영향을 받아 상호보완을 가져온 것 같다.

의상에 있어서도 유사(類似)하게 되었으니 우도(右道)의 장고와 소고(小鼓)는 원래 고깔을 썼는데 이제 좌도(左道)와 같이 소고(小鼓)재비는 전립(戰笠)에 채상노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좌도(左道)굿은 보수적이어서 좌도(左道)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장고에 있어 채상의 윗노리를 하지 않는 우도(右道)에는 장고(長鼓)의 치는 가락이 기교있게 발전하였는데 대하여 좌도(左道)의 장고(長鼓)는 의연(依然)히 윗노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장고(長鼓)의 기법(技法)이 부진(不振)하다.

즉 우도(右道)와 같은 윗노리 없는 장고(長鼓)의 기법(技法)을 영향받지 않기 때문이다.

상모에 있어서는 우도(右道)굿은 속칭 「뺨상모」 좌도(左道)굿은 「부들상모」라 하는데 우도(右道)굿은 물체에 철계(鐵系)를 넣어서 뺨뺨하게 하여 부포를 세우는데 장기(長技)가 있고 좌도(左道)굿은 부들 부들하여 노끈으로 만들어 좌우(左右)로 놀리는데 편의(便宜)하며 돌리는데 특기를 보인다. 상쇠와 소고노리를 위시하여 장고까지 채상돌리는 윗노리는 좌도(左道)가 특수한데 이것은 마치 경상도 것과 유사하다.

또한 전원(全員) 상모를 쓰는 것과 각(各)굿가락의 매짐(빠른 가락으로 모다매짐)이 거의 비슷하며 12차(次)나 24차(次)나 「채」라는 용어(用語)를 쓴 것도 비슷하다. 이것은 경상도와 지역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농악기법(農樂技法)의 본질(本質)이 「윗노리」 혹은 「밑노리」의 양자간(兩者間) 어디에 있든 간에 차츰 농악을 보는 눈은 윗노리 보다도 다분히 타악적(打樂的) 성질(性質)의 것인지는 가락의 기법동작(技法動作) 즉 밑노리에 치중한 듯하다.

여기에 우도(右道)의 밑노리는 대중(大衆)이 좋아하여짐과 더불어 보존되어 오고 반면에 좌도(左道)굿은 쇠퇴화(衰退化)되지 않았는가 본다.

(3). 농악(農樂)의 순서(順序)

농악의 순서는 한 마을을 단위로 할 때의 정외(外) 굿과 한 집을 단위로 한 정내(內) 굿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前者)는 다음과 같은 과장(科場)에 따라 이와 같은 순서로 한다.

① 들장산굿... 입동전(入洞前)에 준비굿이다.

② 문굿... 동구(洞口)에서 실력을 보이기 위한 선보임 굿이다. (약(略)할 수 있다.)

③ 당산굿... 입동승낙후(入洞承諾後) 그 동내 당산신(洞內 堂山神)에 대한 인사(人事) 굿이다.

④ 판굿... 동민(洞民)들에 보여주기 위한 중심(中心)굿이다. (동네 광장에서)

⑤ 도둑대비굿... 판굿 다음가는 연극적 진푸리 굿이다.

⑥ 날당산굿... 굿을 마치고 나오면서 당산축원인사(堂山祝願人事)굿이다.

※ 샘굿... 우물굿으로 동내(洞內) 우물가에서 간단히 친다.

이상(以上)에서 중심(中心)굿은 「판굿」이며 그 외는 절차(節次)굿이다. 이것이 근일

(近日)에는 멀중한 상태이다.

후자(後者)의 「마당밭이굿」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산굿—당산(堂山)의 인사(人事)굿이나 약(略)할 수 있다.

② 문굿—그 집의 문전(門前)에서 알리는 굿이다.

「주인(主人), 중인(中人) 문(門) 여시오. 문(門) 아니 열면 갈라오.»

③ 마당굿—그 집 마당에서 치는 중심(中心)굿이다.

④ 조왕굿—부엌에서 하는 축원(祝願)이다. 「노적이야 노적이야 끌어들이자 노적이야」

⑤ 청옥굿—뒤안굿으로 장독 축원(祝願)굿이다.

⑥ 고방(庫房)굿—창고에 치는 굿으로 부귀축원(富貴祝願)굿이다. 여기에서 마당굿이 중심(中心)굿이다. 그 외에는 절차(節次)굿에 불과하므로 약(略)할 수도 있다. 위에서 두 종(種)의 굿을 나누어 보았으나 이 중에서 「판굿」이 「큰굿」에 대하여 중심(中心)굿으로 근간(根幹)을 이루어 왔다.

※ 농악을 한 마을에서 할 때는 사전 절차(事前 節次)가 있다. 즉 농업가(農業家)는 그 동입구(洞入口)에서 정둔(停屯)한 다음 먼저 영기(令旗)를 앞세우고 「나팔」로 신호하여 「들당산굿」을 치면서 「도청」 혹은 대포수가 교섭(交涉)한다.

이 때 그 동내(洞內)에서 「빛자루」를 주면 불가(不可)하다는 뜻이고 「갈퀴」를 주면 들어오라는 뜻이다.

간혹 부락(部落)에 따라서는 농악의 실력을 고평(考評)하기 위하여 영기(令旗)를 문(門)을 잡으면 문(門)굿을 친다. 불연(不然)이면 내(內)굿을 약(略)한다.

이렇게 입동(入洞)을 허락할 때는 마을 대표(代表)[도청 좌상 동수]가 출영(出迎)하여 안내한다. 출영(出迎)할 때 명석과 상위에 농악대효선부(農樂隊効善簿)를 가지고 나와 단원수(團員數)와 체재기일(滯在期日)을 의조(議調)하여 그 숙식 모금(宿食 募金)을 동재(洞財) 혹은 매호부담(每戶負擔) 여부(與否)를 협정(協定)한다.

전라좌도(全羅左道)에서는 대포수에게 「망태」를 주어서 단원(團員) 1인당 1개씩 술방울이나 혹은 돌을 그 속에 넣게 한다.

이것에 의하여 인수(人數)를 파악하고 그 수(數)대로 밥을 짓고 술을 대접한다.

(4). 농악(農樂)의 가락

농악(農樂)가리의 분류와 순차(順次)는 예로부터 무적(舞的)인 면(面)과 악적(樂的)인 면(面)의 두 요소가 혼합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면(一面)으로서 분류하기는 난점이 있다.

농악(農樂)가리의 명칭을 보면

① 동작상명칭(動作上名稱)과 ② 음악상명칭(音樂上名稱)의 겹들여 혼성되므로서 하나의 명칭에는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었다.

예를 들어 「등마추기굿」 「오방진굿」 같은 것은 동작상명칭(動作上名稱)인데 동작(動作)을 겹들여 혼용(混用)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 따라 같은 한가락 이름을 달리 하기도 하며 어떤 것은 이름이 없는 것도 있다. 이것들은 통일된 용어가 없이 산만하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농악의 순차명칭(順次名稱)에 있어 「채」라는 이름과 「굿가락」이란 명칭을 쓰는데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굿가락이란 이름을 쓰면서 주로 「채」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좌도(左道)와 경상도

지방이며 「굿가락」이라는 명칭은 주로 우도(右道)지방에서 많이 쓰는데 「채」 「굿가락」은 용어만 다를 뿐이고 본질적 차이는 없다.

좌도(左道)와 경상도에서 12차(次)나 24차(次)의 「채」라는 말이 있는데 「굿가락」과 같이 동위적 연순차(同位的 延順次)이다.

재언(再言)하면 흔히 12(12日)차니 24[24절후(節後)]니 라든가 낮에는 33차(33天)가락 밤에는 28차[28숙(宿)]가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내원(來源)은 중국고사(中國故事)에 구결(拘決)되어 배합부회(配合附會)하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농악은 이에 구애 없이 자연스럽게 예로부터 전래하였으니 본래 면목(面目)은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 숫자에 억매여 풀이한다면 억지 부회(附會)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혼돈 속에서 전래한 농악의 가락 서차(序次)는 고정적(固定的)이면서 가변적(可變的)이다.

고정된 가락차서(次序)를 지니면서 때로는 선후(先後)를 달리하여 즉흥적인 가락의 변화가 증감(增減)을 파생하기도 한다.

여기서 전반적인 가락차서(次序)를 볼 때 이의 기본 쇠가락은 대개 8, 9종(種)으로 추정되며[차항(次項) 참조] 이것은 거의 4박자이고 「자진모리」 「중중모리」 「휘모리」 장단에 부적(不適)하며 이 중에도 8할 이상이 「자진모리」이다.

ㄴ. 기본(基本)쇠가락—「오채질균, 외마치질굿 좌질굿 풍류굿 삼채굿 시산조시, 호호굿 오방진굿…」

※ 자진모리 하나의 장단을 공박(空拍)○과 원박(原拍)●과 점박(點拍): 의 짜임새에 따라서 10여종의 가락으로 달리할 수 있다.

4. 농악(農樂)의 편성(編成)

농악복색(服色)은 일정한 제복(制服)이 없었으나 근대에 와서 지방에 따라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등치기(빨간저고리)바지 간발 짚신 테뺌입 머리수건 청목수건 색(色)띠의 쇠옷인데 팔에 「까치동」을 달고 등에 「일광」 「월광」을 부치고 「색(色)수건」을 달았으나 그 후로 변천하여 까치동이나 일광 같은 것을 달지 않고 등뒤에 부치던 색(色)수건을 앞으로 칠자(七字) 색(色)드림을 하여 치배의 차에 따라 삼색(三色)띠 이색(二色)띠 일색(一色)띠 등의 청(靑)·황색(黃色)을 드림을 하였다.

- ①. 용(龍)당기—평장목 용을 그림
- ②. 영기(令旗)—삼두창 영자(令字)를 씌
- ③. 농기(農旗)—평장목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 ④. 라팔—농악복(農樂服)
- ⑤. 새넙—농악복
- ⑥. 상쇠—삼색(三色)띠
- ⑦. 부쇠—이색(二色)띠
- ⑧. 중쇠—이색띠
- ⑨. 징—이색띠
- ⑩. 수장고—이색띠

- ⑪. 부장고—이색띠
- ⑫. 북—일색(一色)띠
- ⑬. 수범고—일색띠
- ⑭. 부범고—일색띠
- 팔(八)범고—일색띠 「범고수(數)는 가감(加減)이 있음」
- ⑮. 대포수—사대부 털목자 등지기
- ⑯. 창부—패랭이 칭창옷 구대진사(九代進士) 삼대권농(三代勸農)을 부침
- ⑰. 농구—상쇠모의(模擬)
- ⑱. 증—고깔 장삼
- ⑲. 조리종—송낙 배랑
- ⑳. 무동—고깔 복건 쾌자
- ㉑. 양반광대—관 도포 담배대
- ㉒. 할미광대—할머니가면(假面) 여복(女服)

※ 지방에 따라 편성(編成)의 차이가 있다. 좌도(左道)는 전원(全員)이 상모를 쓰고 우도(右道)는 징 장고 북재비는 고개를 쓴다. 새납 자바라 등이 편입될 수 있다.

5. 세시 농악(歲時 農樂)

정월(正月)

ㄱ. 걸궁굿... 마당밭이 굿으로 정초(正初)부터 정월(正月) 한달간 동내매호(洞內每戶)를 순회하여 백미(白米)와 현금(現金)을 기증받고 동내공익사업금(洞內公益事業金)으로 쓴다.

ㄴ. 줄나르기굿... 정월(正月) 보름날 동내(洞內) 청소년들이 「동아줄」을 꼬아서 용트림(용(龍)의 모양으로)을 해가지고 이 용트림에 나무를 군데군데 끼워 어깨에 메고 앞장을 서고 뒤에 농악대(農樂隊)가 따르면서 동내(洞內)를 한바퀴 돈 다음 당산에 갔다 놓고 편을 갈라서 줄다루기를 하고 이기는 편이 당산(堂山)나무에 줄을 감아 놓으면 전원(全員)이 이 앞에 서서 인사를 한다. 이것도 역시 축원(祝願)굿의 하나이다.

ㄷ. 망월(望月)굿... 정월(正月) 보름날 밤에 소나무 가지를 수십(數十)짐 당산(堂山)마당에 모아 놓고 불을 놓고 콩을 동내부인(洞內婦人)들이 「대리미」에 담아 가지고 와서 망월(望月)불에 콩을 볶아서 동내(洞內) 아이들까지 빠짐없이 나누어 먹는다.

이 때 농악대들은 「달따자 달따자 하늘잡고 달따자」 구호(口號)를 부르며 흥이 나게 논다.

ㄹ. 기마기굿... 용(龍)당기를 만든 연령순(年輪順)으로 선후배를 정하여 우의적(友誼的)인 형제를 맺어 정월달이면 세배하고 서로 맞이여 술을 마시며 흥겨운 농악(農樂)노리를 한다. 이와 반대로 모세배(謀歲拜)를 서로 먼저 받으려다가 야기(惹起)하는 「기싸움」이 있다.

이와같은 예(例)는 농기행진시(農期行進時)에도 있다. 마을 경계선로(境界線路)에서 만나게 되어 서로 선례(先禮)의 양보(讓步)가 없을 경우(境遇) 만력(瞞力)으로 강청(強請)한데서 「기(旗)싸움」이 전개(展開)되는데 승패에 따라 형(兄)이 되고 제(弟)가 된다는 것이다.

2·3·4月

화전노리... 이 날에 농민이 하루를 쉬며 농악을 치고 논다.

3·5·6月

(1). 단오(端午)노리... 5월 단오(端午)날에 그네를 뛰며 씨름을 하는데 농악(農樂)노리를 한다.

(2). 모내기농악...이것은 「모방고」라 하여 북을 치며 모내기를 한다.

(3). 제초농악(除草農樂)... 제초기(除草期)에 간소한 농악을 치며 노작(勞作)을 도운다.

※ 곤장때리기...모내기때 총각좌상이 있어 일하는 도중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방구」를 울며 점심 먹으러 나왔을 때 엎드려 놓고 곤장을 맞게하는 일도 있다.

4·7·8月

가. 두레굿노리... 제초기(除草期)에 결성되는 농부의 공동작업형태(共同作業形態)인 「두레굿」을 할 때 좌상의 지휘로 농악을 치며 방개소리를 한다.

평과리, 장고는 삿갓을 쓰고 소고는 흥청웃에 어수화(대나무가지에 종이로 매화꽃을 만들어 부침)을 쓰고 굿가락에 따라 춤을 춘다.

만두리 끝날에 일을 마치면 당일 논머리에서 그 집 머슴을 소 혹은 새다리를 태우고 농립(農笠)으로 일산(日傘)을 만들어 소리를 외치며 난무(亂舞)하면서 행군(行軍)한 후 동내(洞內) 그 집 마당에서 장원(壯元)술을 마시며 농악(農樂)노리를 한다.

나. 7월백종(百種)노리... 7月 7夕 날이면 호미를 씻는다고 하는데 백종(百種)날이면 제초(除草)가 끝나므로 손발을 씻는 날이다.

이날을 흔히 술메기 날이라 하여 장원(壯元)술을 마시는데 머슴을 소에 태우고 농악노리를 한다.

다. 추석(秋夕)노리...8월 보름 추석에는 각촌(各村)에서 씨름대회 농악대회로 즐긴다.

※ 합(合)굿... 농악행진 때 다른 동내 농악단(洞內 農樂團)과 만나게 될 때가 있다.

이때 두 동내 양농악단(洞內 兩農樂團)이 서로 혼합하여 흥에 겨워 놀게된다. 이것을 합(合)굿이라 하는데 때로는 양농악단(兩農樂團)이 싸움도 한다.

5·10月

당산(堂山)굿... 10월에는 마을마다 당산(堂山)나무에 금줄을 매고 그 앞에서 농악(農樂)노리를 한다.

6·12月

(1). 절굿... 선달에는 각 절에서 마을 농악대(農樂隊)를 초청 절굿을 한다.

(2). 매귀굿... 선달 그믐날(음력12월말일)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망년(忘年)굿을 친다.

이것은 해가 바뀌는데 악귀가 물러가고 새해에 복을 비는 제재초복(除災招福)을 축원(祝願)하는 굿이다.

6. 용어해설(用語解說)

ㄱ. 일반용어(一般用語)

①. 선창굿... 해안지대어부(海岸地帶漁夫)들이 정월(正月)달에 치는 축원(祝願)굿

②. 못방고... 모내기 때 치는 북.

③. 법고... 소고 또는 매구북이라 호칭

④. 매기굿... 선달 그믐날 잡귀(雜鬼)를 쫓는 굿(전라도) 농악전체(農樂全體)를 말함(경상도)

- ⑤. 잡색... 대포수 창부 등으로 농악(農樂) 뒤에 따른 것
- ⑥. 윗노름... 썰과리 소고 등의 상모쓴 치배가 돌리는 상모노름
- ⑦. 치배... 농악구성인원(農樂構成人員) 재비
- ⑧. 세산조시... 빠른 가락 휘모리
- ⑨. 농기패... 농악단(農樂團)
- ⑩. 두레패... 농악단
- ⑪. 잉어거리... 완자거리와 같이 합장원박을 넘어가는 가락
- ⑫. 매귀굿... 농악단(農樂團)
- ⑬. 걸립패... 걸증패와 같이 농악단
- ⑭. 풍장... 농악(農樂)
- ⑮. 굿물... 농악 「굿패」은 농악단을 말함(호남)
- ⑯. 나비상... 소고재비가 뛰어 떨어지며 나비모양으로 춤을 추는 것
- ⑰. 자반뒤지... 소고재비가 거반 누어서며 회전하는 동작
- ⑱. 사모재비... 소고 사면(四面)을 돌려 치는 것
- ⑲. 혼림당산굿... 간단하게 약식(略式)으로 치는 굿
- ⑳. 역진당산굿... 소고가 앞을 서서 역진(逆進)하는 굿
- ㉑. 도청 좌상... 농악단간부(幹部) 혹은 마을간부
- ㉒. 구정노리... 굿거리장단의 장고춤 노리
- ㉓. 호도대기... 빠른 속도로 장고를 치는 것
- ㉔. 두루거리... 자반뒤기와 같이 모든 소고의 동작
- ㉕. 연풍새... 빠른 속도로 전신(全身)을 회전하는 것, 미지기초(좌도)
- ㉖. 안담... 전원(全員)이 연풍대로 빨리 도는 것(좌도)
- ㉗. 고사굿... 마당굿을 칠 때 그 집에서 쌀을 개놓으면 쌀을 놓고 축원고사를 올리는

굿이다 (유한준)

ㄴ. 윗노리(상모짓)

- ①. 의상패놀음... 부포를 1회(回) 회전(回傳) 1명(名) 일사 외사 의상모
- ②. 양상피놀음... 부포를 좌우회전 1명 양사 양상모
- ③. 사사윗놀음... 부풀 좌2회 우2회
- ④. 전치기윗놀음... 전립(戰笠)태두리를 장단에 따라 돌리기
- ⑤. 산치기윗놀음... 부포를 세우다
- ⑥. 양산치기윗놀음... 세우고 재치고 우복(友覆)
- ⑦. 양산전치기놀음... 종합(綜合)놀이
- ⑧. 배밀어기... 부포를 세웠다 중간을 꺾은 것
- ⑨. 돛대치기... 부포를 세우고 달려드는 것.
- ⑩. 좌우(左右)치기... 옆치기
- ⑪. 복판치기... 부포를 중앙에 세우고 꺾고
- ⑫. 혼든치기... 좌우(左右)를 치는 것
- ⑬. 이슬털이... 부포를 세웠다 꺾는 것
- ⑭. 전조지... 전립사방(戰笠四方)을 돌리면서 전립(戰笠)끝만 짚는 것
- ⑮. 까치걸음... 좌우로 전진(前進)
- ⑯. 짝두름... 상쇠와 중쇠가 쇠를 중앙(中央)에 얹어놓고 춤을 추고 부포짓을 까면 장

고법고가 원을 그리고 도는 것

- ⑰. 영산... 상쇠와 중쇠가 교대하여 솟작 가락을 친다[좌도(左道)]
- ⑱. 면도리... 부포의 앞에 있고 가락 맞추어 얼굴만 돌린다.
- ⑲. 용솟음... 적자부터 부포까지 바로 세워 올린다.
- ⑳. 개꼬리상모... 뒤에서만 좌우로 흔든다.
- ㉑. 패넘기... 앞에서 돌린 후 뒤로 퍼넘기는 것
- ㉒. 연봉노리... 연 봉우리 모양으로 하는 부포짓
- ㉓. 해바라기... 해바라기 모양으로 하는 부포짓

1)



〈농악 장면(農樂 場面)〉

- ◎ 農樂의 기록은 볼 수 없으나 이와 關聯된 것을 들면
高麗史에는 太祖奮戰하여 賊을 擊破한 後 軍樂과 儼戲를 베풀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의 軍樂은 農樂과 關聯이 있지 않나 보며 李齊賢의 農歌, 李朝世祖의 農歌의 장려, 이도 農樂과 關聯을 볼 수 있으며 高宗 때에는 景福宮 修理工事 때 밤에는 農樂大會를 열어 勞役人夫를 慰撫하며 이를 즐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 上文의 引用한 三國志의 資料를 宋錫夏氏는 「農耨」이라고 하였다. (民俗備)
- ◎ 「북」이 上古의 唯一한 樂器란 說은 崔南善氏 論文(常歲問答)
- ◎ 高麗歌謠중의 아으동동다리하는 後敍 동동(動動)은 북소리의 擬聲인가 추측(任東權)
- ◎ 軍樂說은 軍樂模擬說이라고 말한다.
軍中陳法을 傳授하는 目的이 아니고 農樂은 數人의 打樂 群舞와 더불어 마스크임과 같은 動作이 並行되므로 여기에 群團의 動作上 陣法을 模擬하여 진푸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때부터 始作되었는가는 文獻이 없어 알 수 없으나 乞笠農樂 때부터 진푸리로 나타나 「판굿」 「도둑제비굿」에서 施演된 듯 하다.
- ◎ 잡색, 이것은 樂器는 들지 않고 여러 모양의 假裝을 한 대포수 창부양반광대 중등이 農樂대 뒤에 따라다니며 탈노리춤으로 여러 가지 制約인 雅戲를 形容하는 뒤치배를 말한다.